

지금은 아산군 인주면 해암리에 한 천민의 아내에 얽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려도 비석도 없이 지금은 한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지다가 기억에서 차차 멀어져 가는 실화다. 열녀 민씨 부인의 사건과 같은 병자호란때의 이야기다. 설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양반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오랑캐가 쳐들어 왔다는 소문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마을에 퍼졌다. 남달리 나라를 사랑했던 설씨 부부는 망설일 여지가 없었다. 남편을 보내는 설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라를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소. 내 저 오랑캐들을 모두 물리치고 오리다." "여보, 부디 몸조심 하시고 열심히 싸워주세요." 남편을 보내고 설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떠 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나라와 남편을 위해서..... 그러나 워낙 숫자가 많은 오랑캐들은 드디어 설씨가 사는 마을에까지 쳐들어왔다. 다시 의병 모집이 있자, 설씨는 의병이 될 것을 결심했다. 남자들도 꺼리는 일을 설씨는 하고야 말았다. 두아들을 눈물로써 피난시킨 그녀는 치마 저고리를 벗고 바지저고리로 입고 머리를 동여맸다. 검탈을 당하느니 이 한목숨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설씨는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싸웠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난폭한 오랑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기엔 너무 힘이 부족했다. 한 오랑캐의 칼이 설씨의 배를 찌른 것이었다. 설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두 아들과 남편을 불러 가면서 숨을 거두었다. 마침내는 오랑캐들도 물러갔고 피난갔던 모든 사람이 돌아왔다. 설씨의 두 아들은 어머니를 찾았다. 한 쪽에서 숨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아들은 엄마를 붙들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껏 설씨가 남자인줄 알았던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하여 설씨는 그 마을에서 잊혀지지 않는 애국녀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애국자들이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이 나라에는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한 천민의 아내로서 장성한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일을 오직 미미한 힘이나마 오랑캐들에 짓밟힌 나라를 구하고자 전쟁터에 뛰어들어 설씨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었을까?